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8일)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123년만에 바람 쐰 팔만대장경 인경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10월 7일 장경판전 계단 아래 설치 된 포쇄소 앞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해바라기(포쇄)' 행사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포쇄는 책을 거풍(擧風)하는 작업으로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전통방법이다. 해인사가 인경본 1270권 전권을 포쇄한 것은 인경작업을 한 1898년 이후 123년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 취소하라"

조계종 환경위원회, 10월 8일 비판 성명 발표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 인근에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며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2011년 불교계와 주민들의 항의에 산림청의 승인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산림청이 재허가한 것이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 이하 조계종 환경위)는 10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행환경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 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은 지난 2005년 처음 시도됐으며, 2011년에는 산림청 개발허가까지 받았으나 지역 불교계와 주민, 국회의 항의에 허가가 됐다. 특히 해당 채석장은 봉암사에서 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채석이 이뤄질 경우 수행환경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 환경위와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환경위는 성명서에서 "산림청은 지난 2012년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으로 지정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며 "산림청은 2011년 이미 승인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다시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지역 불교계 및 환경 단체와 연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산림청은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세계기록유산지정 20주년
직지, 서지학 측면만 부각
본질인 내용 연구는 '부재'
무관심 속 탈불교화 우려
본질 알리는 노력 시급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불교성보다.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쇄술 등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만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라는 명칭에 가려져, 정작 성보로서 〈직지〉의 가치와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지학적 측면의 가치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직지〉의 본질에 주목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알리고 성보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직지〉의 원래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법맥의 계승을 위해 선불교 요체를 추려 저술한 일종의 불교성전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20주년을 기점으로 〈직지〉를 향한 관심이 재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지〉의 내용과 성보로서의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서점에서 판매 중인 출판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직지〉의 유명세에도, 우리말 번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동국대역경원이 편찬한 〈직지(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한 서너 권에 불과했다.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서적들도 대부분 금속활자나 인쇄술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지〉를 향한 대중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직지시낭송대회' 를 개최해 온 이양호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장은 "시낭송대회 참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직지〉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심지어 불자들조차 〈직지〉가 불교서적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직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쇄술이나 서지학적 측면만이 부각되면서, 본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청주시가 1992년 개관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 역시 금속활자와 인쇄출판에 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청주시가 서원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중인 '직지대학' 의 커리큘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지대학의 직지지도사 양성과정은 한국 고인쇄 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를 비롯해, 한지 · 활자 · 먹, 붓 등에 관한 이론 및 기법 ·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체험 강좌가 주를 이룬다. 결국 1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직지지도사들 역시 〈직지〉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직지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개인적인 원력으로 〈직지〉 강의를 이끄는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 인쇄물로서의 가치보다 그 내용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지〉 원본 영상 촬영에 동행했던 경험을 전하며 "현 상황은 책에 담긴 진면목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혜원 스님에 따르면 당시 촬영팀과 관계자들은 〈직지〉에 담긴 내용을 대단히 궁금해 했으며, 이후 그 속에 응집된 선불교의 정수를 접하고 이해하기 위해 참선수행에도 동참했다. 이는 〈직지〉가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방증한다. 스님은 " '직지' 의 본질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직지〉에 담긴 사상적인 깊이를 여러나라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더 쉬운 언어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원 스님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의 지원으로 한 · 불전문가들과 함께 〈직지〉의 불어번역을 추진 중이다. 사회부는 "그동안 〈직지〉를 연구하고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서지학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직지〉의 본질과 성보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佛敎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문 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02-2264-4714 | abook@jeongjincorp.com

다음주 발행 1360호는 연휴 관계로 늦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경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일동
문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